

친명 “합당은 분란·갈등” vs 친청 “대표 모욕”

민주당, ‘혁신당 합당’ 내용
정청에 “결정·선언은 아니다”
이언주 “당원 주권주의 위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명분과 절차 등을 놓고 공개 충돌하는 등 내용 조정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합당’을 제안했던 정청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령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면전에서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태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것이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합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권인 당원이 결정한다”면서 “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순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형용모순”이라며 “분열한 세 정당을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리하다”고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의 박빙 선거에서 부자정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라며 “절실한 선거 때의 (후보자)마음을 헤아린다면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당내 의원, 당원은 물론 최고위원조차 폐쇄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주권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하



내일 입춘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천교에서 유림이 입춘 철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불호 차원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이 이제 정부와 중도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데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면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열린우리당 시절 2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다. 최고위에는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라며 “지금도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정 대표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은 부동산·설립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내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식은땀이 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혁신당과의 불협화음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희 최고위원은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의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원들께 재검토하고, 공은 당원들에게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옹호했다.

특히 앞서 발언했던 최고위원들은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혁신당과의 불협화음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희 최고위원은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의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원들께 재검토하고, 공은 당원들에게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옹호했다.

을 겨냥해 “(당 대표를)면전에서 만박을 주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냐”라며 “적어도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껏 당 대표(시절) 면전에서 독설을 쏟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여당의 합당 논쟁은 차기 당권 구도와도 연결되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밀야? 타격 소재”, “밀야 여부 밝혀야”, “나눠 먹기 불가” 등의 휴대용 메시지 내용이 포착되면서 ‘밀야설’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경기도, 4년간 태양광발전소 1.7GW 설치 통상 1기 500mw 화력발전소 3기 전력 생산

경기도는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1이 넘는 수준이다.

도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유망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을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반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적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추진했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4000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장려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독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만~20만원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료를 아끼고 있으며,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 수익은 공동체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 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두드러진다. 경기도 산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가운데 무려 80%가 지난 4년 동안 추진됐다.

민간 투자를 돕고 규제를 개선하여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 대비 3배 늘렸다. 이로써 도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져 발전된 공간 지분을 활용해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 RE100’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가속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붕, 내재지, 아파트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소득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무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다.

이제 주민 참여형이나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수원=재홍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공모사업에 선정 (노동부)

AI 활용 산업현장 안전 강화

인천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자치단체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반 작업장 안전감지 자치단체 해소 지원사업, 밀폐공간 진입 훈련,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등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9개 세부 사업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반 작업장 안전감지 자치단체 해소 지원사업, 밀폐공간 진입 훈련(Confined space entry

training) 지원사업,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사업, 소규모 부리산업 화학물질 안전·보건체계구축 사업,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 사업, 인천형 중대재해 예방 통합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계기로 산업현장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원=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 도입 서울시, 전산 바비 대비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바비 상황에서도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영문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지리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시민 처리와 내부 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마련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에는 ▲전산 장애 발생 시 문서 작성·절제·집수·발송을 종이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 ▲

수기문서 문서번호 부여 및 등록 대상 관리 방식 ▲관인이 필요한 문서의 예외 처리 기준 ▲시스템 복구 이후 전자문서 재등록 및 기록물 이관까지 전과정에 체계적으로 담겼다.

전산 장애 상황에서 행정의 효과와 기록 관리가 유지되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뉴얼에는 전산 장애 인지 및 보고 체계, 부서별 역할 분담, 비상 연락망 운영 방식 등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산 장애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이후에도 업무 누락이나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 부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분청과 사업소 등 720여개 전 부서 직원에 행정포털과 영문관리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하고, 전 직원이 동일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적용해 민원 처리

와 내부 결제를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훈련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식적 모의훈련이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립된 표준 매뉴얼이 실제 재난·장애 상황에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지를 전직원이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매뉴얼 수립과 훈련을 통해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2026

謹賀新年

병오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도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 계획]

구분	회기	일수	주요안건	비고	구분	회기	일수	주요안건	비고
제309회 (임시회)	2.03(화)~2.11(수)	9일 (휴일2일포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도회개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설면류 2.16.(월)~2.18.(수)	제312회 (제1차 정례회)	9.02(수)~9.16(수)	15일 (휴일4일포함)	○구정결론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추석연휴 9.24.(목)~9.27.(토)
제310회 (임시회)	4.08(수)~4.16(목)	9일 (휴일2일포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직책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구민안날 4.25.(토)	제313회 (임시회)	10.13(화)~10.21(수)	9일 (휴일2일포함)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311회 (임시회)	7.03(금)~7.16(목)	14일 (휴일4일포함)	○제10대 남동구의회 개원 기념식 ○의정단 선거 및 위원회 구성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314회 (제2차 정례회)	11.20(금)~12.18(금)	29일 (휴일8일포함)	○구정결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계					6회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남동구의회